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목상기도		다 같 이
찬 송	408장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출애굽기 2장 1-10절	말 은 이
말 씬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냄이라	말 은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하신 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도록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그들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은 점점 증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며 압제하기 시작하고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억압과 착취, 폭력,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서 자유와 평화를 잃고 복종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압박은 점점 거세져 마침내 자기가 낳은 아들을 기를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됩니다. 날마다 고통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지파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에 아들을 낳음은 그들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기쁨인 동시에 큰 위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석달 동안이나 아기를 숨겨서 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 권세 잡은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였으나 그 명령보다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간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가족의 믿음과 용기의 행동은 바로 왕의 명령과 권세 앞에 아주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이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씨앗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심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에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끌 사람을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기마저 나일강

에 버려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버려짐은 하나님께서 펼치실 구원의 역사의 또 다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씨앗으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로 부모 슬하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시고 나일 강에 버려지게 하셨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버렸으나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숨겨 기른 아기 모세를 믿음으로 버렸습니다. 그 때 모세의 부모와 그 가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미리암을 시켜 아기 모세를 지켜보게 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아기를 건져내십니다. 버려지지 않으면 건져질 수 없었습니다. 아기 모세도 버려진 후에야 건져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아기 모세의 버려짐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모마저 버릴 수 밖에 없었던 아기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그것과 다릅니다. 버려진 아기가 있는 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옵니다. 그것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은 아기 모세를 보호하시고 살릴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이제 모세에게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안전한 품에 안겨 주시고 거기서 자라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고통당하고 버려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건짐받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건짐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 도		설 교 자
찬 송	559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